特 別 講 演

우리나라 農業水利施設의 遺蹟을 찾아서

李 基 春
(韓國農工學會 顧問 · 全北大學校 敎授)

러시아 格言에 「過去에 너무 執着하면 눈이 흐려진다. 그러나 過去를 아주 잊어버리면 장님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콘트」는 「어떠한 科學도 그 特有의 歷史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 科學의 大家는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農業土木學發展의 歷史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가장 輕視되어 왔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農業土木에 關與하는 사람들이 農業土木의 遺產에 대해 극히 사소한 知識밖에 갖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찾아보는 것도 그런대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 나머지 우리나라에는 古代로부터 어떠한 農業水利施設物을 利用해 왔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보잘것 없고 完全하지도 못한 資料이기는 합니다만 簡略하게 紹介해 볼까 합니다.

이 資料를 蒐集하는데 協助해 주신 韓國農地開發研究所의 安在淑 理事長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합니다.

1. 序 言

農業水利事業은 畓作農業이 發達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먼저 우리나라 畓作農業의 起源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三國志 魏志 弁辰傳에 「土地肥美 宜種五穀 及稻」라 적혀 있고 三國史記卷第 23 百濟本紀 第 1에 「多婁王 六年(AD33) 二月에 「春正月下令國南州郡 始作稻田」이라 적혀 있어서 弁辰國과 百濟初期에 畓作農業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체로 水稻作의 傳來를 西紀前 1世紀前後로 본다면 農業水利事業의 發達은 그 以後부터 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史記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西紀 4世紀中葉에 全羅道 金堤地方에 碧骨堤가 있었다는 記錄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때쯤의 水利事業은 相當한 水準에 있었다고 推測할 수 있다. 우리나라 堤堰築造의 記錄上 最古의 자리에 있는 碧骨堤에 대해 三國史記 卷第3 新羅本紀에 訖解尼師今 21年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筆者註, 步는 周尺의 길이의 單位로서 約 6尺)라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이 堤堰은 記錄上 最古일찌는 몰라도 堤堰築造의 창始는 아닌것 같다.

이보다 앞서 水利에 대한 記述을 史記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三國史記新羅本紀 逸聖王 11年(AD 144)의 「春二月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諸州郡 修完堤防廣闢田野」라는 句節이 있음을 볼 때 碧骨堤築造記錄 以前에 이미 堤防 등을 築造하여 水利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農耕의

發達과 더불어 水利技術이 高度로 發達하여 그 以前에 이미 百濟人의 堤堰技術이 日本에 流入했음을 알 수 있는 日本의 古記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碧骨池의 規模나 그 築堤技術만 보더라도 많은 古堤들이 이에 앞서 築造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史書에 나타난 水利施設物의 名稱을 分類해 보면

1. 堤堰 2. 防築 3. 坰 4. 池 5. 堤 6. 堰 7. 洑 8. 渠 9. 筒

등이 있다.

오늘날 貯水池를「방죽」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防築」에서 온 말이다. 이와같이 옛날에는 水利에 利用된 貯水池가 여러가지 이름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例로서 牧民心書 卷11工曲 川澤條에 보면

「東土名湖 僅有七八餘, 皆窄小 然且封合 而不修矣 我邦大陂 又有咸昌之空骨堤 陜川之 義林池, 德山之合德池, 光州之, 廣陽池 延安之 南大池 今皆淤塞 此守土者之責」이라 하여 空骨陜 義林池 合德池 廣陽池, 南大池 등의 大堤堰이 貯水가 없고 진흙으로 메워져 있다고 하였다.

韓日合邦後 日人의 손에 의해 水利組合이 設置되면서 近代科學技術에 의한 댐工事가 시작되었으나 그 以前까지의 堤堰의 數가 얼마나 되는지는 오늘날과 같은 正確한 統計表가 없어 確實한 數를 알 수는 없으나 몇가지 記錄을 參考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增補文獻備考 卷146 田賦考 6, 堤堰條에 보면 正祖年間의(1776~1779) 全國 各郡縣의 堤堰數가 記錄되어 있는데 그 合計를 보면

京 畿	229	忠 淸	503	全 羅	943	慶 尙	1,520	黃 海	26
平 安	55	江 原	65	咸 鏡	24	總 數	3,375가	된다.	

그런데 이 數에는「洑」가 包含되지 않은듯 하다. 그 까닭은 純祖 8年(1808)頃에 編纂된 萬機要覽財用編 5, 堤堰條를 보면 各道의 堤堰數는 增補文獻備考의 數와 거의 비슷한데 다음과 같이 洑가 따로 添加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水 原	堰 24處	內廢 7處	
廣 州	堰 13處	內廢 3處	
江 華	堰 32處		
京 畿	堰 245處	內廢 9處	
慶尙道	堰 1765處	內廢 99處	洑 1339處
全羅道	堰 936處	內廢 24處	洑 164處
忠淸道	堰 525處	內廢 17處	洑 497處
平安道	堰 5處		洑 109處
黃海道	堰 45處	內廢 6處	洑 71處
咸鏡道	堰 24處	內廢 3處	洑 24處
江原道	堰 71處		洑 61處

어떻던 李朝後期의 水利施設을 槪觀할 수 있는 堤堰數를 여러가지 文獻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慶尙道續地理志 睿宗6年(1474)	中宗實錄卷46 中宗18年1月條 (1523)	萬機要覽 英祖6年 (1730)	文獻備考 正祖6年 (1782)	隆熙2年 (1908)
京 畿			314	270	149
慶 尙	769	800	1,765	1,522	1,223
全 羅	960		936	913	745
忠 淸	500		535	503	247
平 安			5	55	37
黃 海			45	26	157
咸 鏡			24	24	54
江 原			71	65	68
計	約 2,400		3,695	3,378	2,780

위 表를 보면 全國堤堰數의 9割以上이 慶尙, 全羅, 忠淸, 京畿 四道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水利施設로는 이들 堤堰 外에 山·河川에는 小規模의 洑가 많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引用한 萬機要覽에 의하면 前記堤堰 外에 洑의 數가 記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京畿는 不明 慶尙 1765, 全羅 164, 忠淸 497, 平安 109, 黃海 71, 咸鏡 24, 江原 61과 같다.

慶尙·忠淸은 洑의 수효가 堤堰의 수효와 伯仲하며 平安은 壓倒的으로 洑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以上 七個道의 洑의 合計는 2291개소에 달한다.

이 밖에 「賜慶尙道暗行御史 金義淳卦書」에 의하면 各邑疏堤處 堤爲 187, 堰爲 2 洑爲 181, 晉州 堤 37, 洑 18, 星州 堤 12, 靑松 堤 9, 洑 21, 河東 堤 3, 堰 2, 洑 14, 咸陽 堤 1, 醴泉 堤 10, 梁山 洑 9, 盈德 堤 1, 義城 堤 13, 洑 10, 南海 洑 8, 開寧 堤 17, 洑 11, 宣寧 洑 5, 河陽 堤 24, 洑 10, 淸河 洑 3, 彦陽 堤 1, 山淸 堤 2, 洑 1, 丹城 堤 1, 熊川 堤 4, 洑 6, 慈仁 堤 32, 洑 8, 漆原 堤 3, 洑 14, 聞慶 堤 2, 洑 31, 安義 堤 1 …… (中略)라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면 記錄上 남아있는 우리나라 水利施設의 遺跡을 차례로 찾아보기로 한다.

2. 各　論

가. 堤　堰

1) 碧骨堤

全羅北道 金堤市에서 광활한 南쪽 벌판으로 扶安街道를 달리자면 약 6km지점에 扶梁面浦橋里에 이른다. 이 浦橋里에서 南쪽으로 鳴琴山 北端까지 엇비슷하게 뻗혀 있는 뚝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有名한 碧骨堤의 남아있는 堤防의 一部이다.

小白山系의 蘆嶺山脈인 母岳山과 象頭山을 비롯하여 群小連峰의 西北에서 發源하는 豊富한 水資源을 여기에 저류 시켰다가 金萬頃平野를 위시해서 井邑郡 一部 등 3個郡의 灌漑·蒙利에 利用하였으니 往年의 稻作文化의 發祥地와 起源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金堤를 百濟時代에는 碧骨郡이라 불렀다. 骨子는 忽이라고도 쓰며 城邑을 뜻하는 우리

古語이다. 이것이 모두 벼(稻)의 골이라는 뜻으로 稻鄕의 이름으로 풀이된다.

碧骨堤는 바로 「벼의 골 둑」을 말하는 것이다. 그 뒤 統一新羅때 金堤로 改名되었으나 이 또한 벼(稻)를 黃金視했던 農本思想에 緣由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즉 黃金을 캐내는 벼의 둑이라는 뜻의 「金堤」인 것이다.

碧骨堤는 東洋最古, 最大의 貯水池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築造年代가 確實치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現存하는 文獻上에 記錄된 것을 보면 앞에서 言及했듯이 三國史記에 訖解尼師今 二十一年(西紀 330年)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卷 3 新羅本紀 第 3)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 同史記 卷 13, 元聖王 6年(790年) 春 1月條에 「以宗基爲侍中增築碧骨堤 徵全州等 七州人(新羅本紀 第 10)이라하여 全州등 七州人을 풀어 增築했다했음을 볼 때 碧骨堤는 三國統一 以前에 이미 百濟에서 築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時代에는 碧骨堤 重修碑文에 「高麗顯宗時 修完舊堤 仁宗 21年 又增修復」이라하여 兩次에 걸쳐 修築했는데 高麗史卷 17에는 「仁宗 24年 2月 庚申에 以巫言 遣內侍奉說 決金堤郡新築碧骨池」라 하여 數年前에 碧骨堤를 修築한 것이 탈이되어 國王이 得病했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內侍 奉說이란 者를 派遣하여 碧骨堤의 一部를 破壞시켰다고 하였다.

李朝時代에 들어와서는 太宗 8年에 兵馬節度使 姜思德이 碧骨堤를 수축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 後 太宗 15年에 王이 그 修築을 命令했더니 當時의 觀察使 朴習은 長興, 高興, 光陽의 築城을 먼저하고 이것을 保留하고자 啓請했으나 王은 「三城修築姑且停之先築碧骨堤」라 하여 먼저 碧骨堤를 修築하라고 下命했다. 그래서 功役이 太宗 15年 9月甲寅에 시작하여 同 10月 丁丑(1415年)에 竣功 되었으니 그 때의 碧骨堤의 모습과 工事狀況이 東國輿地勝覽卷 33, 全羅道 金堤郡 古跡條에 記錄되어 있다. 즉, 「碧骨堤 在郡南十五里 水源有三 一出金溝縣母岳山南, 一出母岳山北 一出泰仁縣象頭山 會於堤 與古阜郡訥堤水, 合于東津…이하略, 이라 하여 碧骨堤의 水源은 셋이고 當時의 堤防 工事에 郡民 1萬名과 幹事者 300名이 2개월 동안 動員되고 뚝은 먼저 木柵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흙을 메워서 築造하였으며 한편 둑 內外에는 버드나무를 2列로 심어 그 基礎를 堅固하게 하고 水門 다섯을 만들었는데 기둥은 돌로 門짝은 槐板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힘들여 重修한 工事도 그 技術이 유치하여 水門부분이 쉬 破壞되었다고 한다. 太宗 18年 1月 그러니까 修築한지 3年도 못되어 破壞되었으니 太宗實錄에 보면

判廣州牧事 禹希烈上書曰…(略) 臣近見 全羅北道金堤郡碧骨堤 西方周回 二息有奇 水門有五 如大川可灌萬餘頃…(以下 略)이라 하여 破壞된 水門 부분을 견고하게 修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上書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碧骨堤의 構造를 記文에 의해 살펴보면 堤防의 下廣이 70尺 上廣이 30尺, 높이 17尺을 쌓은 다음 水渠를 설치하되 左右兩便 水餘流通渠門은, 泥濘時의 疏門用으로 만들고 中央 三門의 水渠에는 兩便에 石柱를 세워서 水門을 만들어 槐本板으로 開閉裝置를 했다고 하며 槐本板을 끼우는 홈(石心陷處)이 現在 남아있는 石柱內側에 幅 6치, 深 7치 정도로 파여져 있다.

石柱의 높이는 15尺, 地下 5尺 以上이고 넓이는 3尺인바 地面을 큰 돌로 다지고 다시 鐵을 녹여 부어 굳혔다.

現在까지 堤防에 訖立하고 있는 石柱는 百濟時代의 傑作으로 그 形態의 雄壯한 手法과 巧妙한 設計는 往時偉業의 一端을 엿볼 수 있을뿐 아니라 左右에 水門 出入線剛刻의 簡易한 手工으로 그 時代의 藝術價値를 유감없이 發揮하였다는 것은 後人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해서 北으로부터 第 1水餘渠는 그 물이 萬頃縣南쪽에 第二長生渠는 萬頃縣 富潤之源에 第三 中心渠는 古阜之地 扶寧之東에 第四 經藏渠 및 第五流通渠는 仁義縣(泰仁)西쪽을 灌漑하였다.

碧骨堤의 이러한 構造를 現代的인 農業土木技術에 比해 볼 때는 유치한 點이 많지만 이것이 1600餘年前 三國時代의 功役이라고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碧骨堤는 1925年 東津水利組合이 설치되면서 現在 東津組合區域의 논이되고 말았으나 堤防의 一部와, 石造水門과 紀念碑 등 遺物이 남아 있는데 紀念碑(1,433年에 세움)는 古蹟 157호로 지정되어 있다.

2) 訥堤(訥池)

訥堤는 全羅北道 古阜面官淸里에 所在했던 古堤로 始築年代는 알 수 없으나 碧骨堤와 더불어 三國時代의 것으로 推定된다.

訥堤는 三大水門 즉 東·中·西의 三個水門이 있었다고 하며 世宗元年에 全羅監司의 啓請으로 訥堤를 修築하였는데 動員된 人員數는 11,580名으로서 工事所要日數는 2個月 間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太宗時의 碧骨堤의 補修와 맞먹을 수 있는 工事였다.

그러나 修築技術은 역시 未熟하여 同 2年 8月의 大洪水로 決潰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음해 全羅監司가 再修築을 啓請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廢堤된 것 같다. 이와같이 訥堤는 廢堤되고 언제 부터인지 栗池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지금은 단지 栗池라는 地名으로 불리어지고 있을 뿐이다.

高宗年間에 編纂된「井邑郡誌」에 의하면 訥池 在郡 四十里 今爲耕田이라 하여 耕田으로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이 근처에 現在 興德堤가 있는데 訥堤 자리에서 4km 上流地點이어서 이것이 訥堤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興德堤는 1919年 4月에 築造한 것으로서 流域面積 4,420町步에 611.3町步를 灌漑한다.(東津農組誌)

3) 義 林 池

忠淸北道 堤川에 있는 古池로서 그 築造年代는 알 수 없지만 八域志에 의하면「自新羅 築大堤障水以灌一邑之稻田」(忠淸道條)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新羅時代에 築造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義林池는 現在에도 손상없이 原形이 保存되어 있으며 有名한 堤堰으로 손꼽히고 있다.

牧民心書卷 11, 工典 川澤條에「東土名湖 僅有七八餘 皆窄小 然且?合而不修矣 我邦大陂 又有咸昌之 空骨陜 陜川之義林池, 德山之合德池, 光州之廣陽池延安之南大池 今皆淤塞 此守土者之責」이라고 한것을 보더라도 義林池가 大堤堰으로 알려졌던 것이 分明하다.

4) 南 大 池

黃海道 延安에 있는 南大池는 그 築造年代를 정확히 알만한 記錄이 없으나 다만 東國與地勝覽卷43 黃海道延安都護府 山川條에 보면 南大池(一名 臥龍池)는 高麗文宗 以前에 축조되었다는 記錄이 있을 뿐이다.

또 同書에 의하면

臥龍池 俗名 南大池 在府南仁里 周二十里一百二步…… 高麗文宗…(以下略)

즉 文宗時에 堤防을 무너뜨려 池中에 있는 기름진 땅을 興王寺에 賜與하여 耕作케 하였던 바 旱魃이 繼續됨에 翰林學士 李雲斡의 奏言에 따라 다시 堤防을 修築하였더니 大雨가 왔다고 하였다.

또 牛溪集 14 延安南院灌記와 備邊司謄錄 第154冊 卷115에 보면 午溪 洪良浩는 英祖46年에 黃海道觀察使가 되어 延安南大池疏濬을 完成했다는 記錄이 있다.

그런데 「梅泉野錄 卷之3 光武5年辛丑條에 보면 「命浚延安郡 南大池 池爲中國大堤堰 出陰火 自然數旬」이라 하여 悽慘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牧民心書에서 丁若鏞은 按法非不具 而今國中陂池 無一不廢棄也라 하여 오늘날 國中의 陂池가 하나도 廢棄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堤堰의 管理狀況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는 南大池는 世祖때는 永膺大君琰과 吉昌府院君 權寧에게 燕山君 때는 龐妃 張綠水에게 賜與돼 있었다는 事實로도 짐작이 간다.

5) 合德池

合德池도 그 築造年代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朝鮮農業의 近代的 樣相」(所收 1940年刊)에서 「合德百姓一揆의 硏究」에 의하면 合德池는 高麗以來 우리나라에서 큰 堤堰의 하나로 꼽힌 堤堰이며 그동안 여러차례 修築된 바 있었다고 하였고 한편 所有關係는 國家 또는 宮房, 심지어는 神堂에서까지 所有된 바 있었다라고 한것을 보면 高麗時代에 築造된 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어떻든 前揭한 牧民心書의 記錄內容에서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大堤堰이었음은 分明하다.

成宗實錄 卷25 成宗 4年 10月 己未條에 보면 成宗 4年 10月己未에 經筵에서 講이 끝나자 領事 洪允成이 啓하기를 「洪州 合德堤堰 自前朝始築 至我朝 鄭本亦監築之 長二千七百餘尺 七邑蒙水利…(以下 略)하니 王이 可하다 하였다 한다. 즉 雨水로 무너진 合德堤堰을 다시 修築하는데 堤堰別監을 派遣하여 工事를 監築시켰다는 것이다.

耳溪集卷 18 太史氏 自序에 보면 牛溪洪良浩는 英祖 44年에 忠淸道 洪州牧使가 되어 洪州民 11,000名을 動員하여 合德池疏濬을 完成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合德堤堰은 이와같이 英祖年間에 補修工事가 있었으나 正祖 2年 本州民 4553名과 隣邑民 3,500名이 動員되어 潰決 2個處를 修築하였으며 16年에는 本州民 3,000名과 隣邑民 3,500名이 動員되어 修築하였고 그 뒤로 해마다 天安 德山, 沔川 等 3邑民의 協助로 修築工事를 했다는 記錄이 備邊司謄錄 第189冊에 실려 있다.

合德堤에는 上·中·下 三段階로 뚝이 築堤되어 上築, 中築의 農土에는 灌漑했다고 했는데 燕山君日記卷 40에 보면 燕山君 7年 6月 甲午·議政府에서 上啓한 中에 「臣聞 合德堰 有三築 上築·中築 則兩旁居民 決水而蒙利 下築則堰下之民蒙其利……(下略)라고 記錄되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水量이 많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다.

이러한 合德池가 燕山君 때 顯淑公主에게 賜與되었었다는 事實이 記錄에 남아 있다.

1893年 陰曆 12月 晦日에 忠淸南道 唐津郡合德面合德里에서 民亂이 일어났는데 當時 合德池는 國有에 屬하였는데 全羅道兵馬節度使를 歷任한 바 있는 李廷珪가 그 地方으로 隱退하여 苛斂誅求를 恣行하기 때문에 그 반발로 附近 六個部落의 農民이 亂을 일으킨 것이다. 李廷珪는 自己가 그 못의 上稧(契長)임을 奇貨로 그 堤堰을 修築한 뒤 堤堰의 얕은 곳은 開墾하여 畓으로 만들어 自己所有地로 만들고 깊은 곳은 貯水하여 蒙利區域 農民으로부터 水稅를 苛酷하게 徵收함에 激憤한 農民들이 마침내 暴動을 일으키게 되었다 한다.

6) 守山堤

東國輿地勝覽 卷26 慶尙道 密陽都護府古跡條에 보면 「守山堤, 在守山縣 周二十里 世傳 金方慶此堤灌田 以備征日本軍需」라는 記錄이 있다. 즉 金方慶은 密陽의 守山堤를 修築하고 그 부근의 땅을 灌漑하여 日本征伐의 軍需에 대비했다고 한다.

成宗實錄 卷13에 成宗年間 그 一部가 奉先寺에 賜與되었다는 記錄이 남아있다.

慶尙北道密陽郡下南邑守山里와 初同面金浦里 사이에 있는 기름진 國農湖 들판은 三韓時代 이래 守山池 또는 守山湖가 있었던 곳으로 傳해오며 그 앞쪽을 둘러싸고 있는 기다란 둔덕을 洛東江 治水와 관련하여 형성된 古代 守山堤의 遺跡으로 推定한다.

新羅를 거쳐 高麗時代에 江물의 氾濫을 막기 위해 長堤를 축조하여 그 안에 軍屯田을 설치했으며 李朝初期에는 國農所를 두어 많은 곡식을 거두기도 했으나 堤防築造技術의 不足과 洛東江 治水의 失敗로 壬辰倭亂 이후에는 蓮꽃과 菱葉(마름모풀)이 가득한 30里 둘레의 沼澤池로 바뀌었다.

지금은 密陽農地改良組合(舊下南水利組合區域)의 蒙利區域으로서 肥沃한 耕作地로 化하여 古代 守山堤와 그 湖水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金浦里 모랫들(沙野) 마을 앞에 잘록하게 돌출한 자라목(鼈山)이라는 野山과 들 가운데 댓섬(竹島)이라는 독뫼(獨山)가 遺跡으로 남아 있어 당시의 地形을 짐작해 볼 수 있다.

7) 恭俭堤

東國輿地勝覽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條에 「又有大堤 名曰恭俭 明宗二十五年 司諫 崔正份 因舊址而築之」(卷57)이라 하여 明宗 25年에 司諫 崔正份이 舊址에 따라 恭俭堤를 再築하였다 라는 記錄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恭俭堤는 이미 그 以前에 축조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始築年代를 알 수 없다.

그리고 哲宗 13年 民亂鎭壓뒤 民心을 收拾하기 위해 嶺南에 宣撫使로 파견되었던 李參鉉의 「僑南日記」에 보면 壬戌(哲宗 13年) 三月二十六日 四十里尙州止宿 尙大都會也 城廓樓榭 極其雄偉恭俭池 在咸昌…(以下 略) 즉 恭俭池의 水利關係로 咸昌 尙州 兩邑民이 宣撫使의 車前에서 爭訟하더라는 것이다.

8) 惠政堤(一名 花竹坪堤防)

朝鮮金石總覽 下·所收 惠政堤碑文에 보면 哲宗 1年 忠淸北道 淸州北쪽 30里 地點에 있는 花竹坪堤防(惠政堤)이 大水로 파괴되자 金永爵이 이를 復舊시켰다는 글이 있다. 즉 翌年春 邵亭 金永爵은 自爾班次擇 守是州民戶相率…(下略)이라 하여 邵亭 金永爵은 錢 200민(緡은 葉錢을 줄에 꿰맨 꾸미)을 農民에게 貸與해준 다음 1000餘丁을 徵發하여 惠政堤 수축을 돕게 하였고 또한 監司에 보고하여 堤防을 완전히 복구했다는 것이다.

또 同碑文에 의하면

哲宗 5年 忠淸道 淸州郡 北三面 花竹坪에 「惠政堤」가 治水工事로 완성되었다 라고 記錄되어 있다.

9) 黃 登 堤

黃登堤는 全羅北道 益山郡에 있었던 堤堰으로서 예로부터 金堤의 碧骨堤 古阜의 訥堤 益山의 黃登堤를 國中 大堤로 三湖라 일컬어왔었다 하며 湖南(全羅道) 湖西(忠淸道)의 稱呼의 유래가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實學者 柳馨遠의 「磻溪隨錄」에서

金堤之 碧骨堤 古阜之 訥堤 益山全州間之 黃登堤 皆是 堤之巨者(以下 略)이라 했다. 즉 金堤의 碧骨堤 古阜의 訥堤·益山 全州間의 黃登堤는 모두 國中大堤로 옛날에는 國力을 기울여 三堤를 수축하였고 三堤를 수축해 놓으면 蘆嶺以北은 영원히 凶年이 없게 되며 凶年이 없어지면 온 나라 萬世의 利가 된다는 말이다.

古來로 沃溝郡의 一部平野와 益山郡一部 平野의 米作耕地는 그 水源을 黃登湖에 두었었다 한다.

元來 이 地方의 土地는 天水에 의존해 왔을 뿐 아니라 爲政當局도 이에 대해 등한히 했던 까닭에 農耕地는 황폐하여 마침내 蘆花千里의 황무지로 化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唯一했던 水源池인 黃登湖 또한 改修함이 없이 방치되어 연못은 土砂로 매몰된 채 廢農耕地만 늘어 갔다. 그러다가 1899年 群山港이 開發되기 數年前부터 群山을 中心으로 이 地方에 居住해 오던 一部 地主들은 이 沃野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自然發生的으로 水利事業의 절실함을 痛感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909年 2月 1日字로 臨益水利組合의 設置認可를 받았던 것이다. 創設當時의 첫 事業의 主目的은 黃登湖의 복구를 위한 改補修事業이었고 名稱을 腰橋堤라 改名했다.

全北 益山郡 黃登面 松山의 北麓에서 부터 黃登驛 東方 黃登山 南端을 連結하는 約 1300m길이의 土堤 위로 黃登街道가 통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舊黃登堤의 자리이다.

이밖에 史書에 記錄되어 있는 堤堰들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0) 陵 堤　11) 赤浦池　12) 普光池　13) 新 池　14) 咸子池
15) 熊山池　16) 萬柳堤　17) 浦項堰　18) 松項堰　19) 萬年堤
20) 大 堤　21) 乃所梯池　22) 鶯金堤　23) 秀岩新堤　24) 空骨堤
25) 廣陽池　26) 矢 堤　27) 大池堤　28) 米原貯水池　29) 北 堰
30) 南川堤　31) 毛知堰　32) 潴水堤堰　33) 細串池　34) 大堤池
35) 蒜山堤堰　36) 忠州堤　37) 新村池　38) 東峨堤堰　39) 水井堤堰
40) 九龍堤堰　41) 水清堤堰　42) 新川里堤　43) 粟池(一名 長者池)
44) 於之屯洑　45) 景祐宮洑　46) 菁 堤
47) 萬石洑(光山洑)

옛날에 諮議 金溟의 所築이며 全羅北道 梨坪平野를 灌漑하는 水利施設이었는데 西紀 1894年 古阜郡守 趙秉甲이 이 洑의 修築을 憑籍하여 苛斂誅求를 恣行한 民怨으로 甲午東學亂을 일으킨 有名한 洑이다.

즉 1894年 全羅道 古阜郡 畓內面 斗田里에서 일어난 民亂 所謂 東學亂은 水利問題로 일어났던 것이다.

萬石洑는 古阜郡畓面斗田里 東津江 兩岸에 築設되어 있었기 때문에 泰仁縣이 가장 많은 水利의 惠澤을 받았으나 그 水稅가 매우 苛酷하게 많아 地方民들이 屢次 輕減을 請願한 바 있었다. 古阜郡守 趙秉甲은 萬石洑가 破損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舊洑下에 新洑를 築設하였고 工事는 모두 農民의 賦役으로 이루어졌으나 도리어 農民으로부터 많은 水稅를 徵收하였으므로 마침내 暴動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48) 於之屯洑 및 景祐宮洑

黃海道 黃海平野를 貫流하는 載寧江의 巨流를 끼고 二大洑施設이 있었으니 그 東쪽에 있었던 洑를 於之 屯洑라 하고 西쪽에 있었던 洑를 景祐宮洑라 한다. 함께 三百餘年前 金自點의 發想에 의해 設置된 水利施設로서 蒙利面積 9000餘町步에 이르는 朝鮮朝時代의 最大이며 가장 精巧한 水利事業으로 認定된다.

오늘날 아쉬운 것은 이 巨大한 水利事業을 計劃했던 金自點은 後에 李朝顚覆을 謀議한 까닭에 逆賊罪로 몰려 그 九族이 滅한 관계로 記錄은 물론이고 口碑조차도 끊겨 자세한 考證資料가 없다는 點이다.

이 於之屯洑는 灌漑蒙利面積 4825 町步, 鳳山郡西麓, 靈泉, 萬泉, 舍人의 四個面을 적시고 連綿

三百里에 達하였다.

또 載寧江의 西쪽에 있는 갈대밭에 대해서는 江을 거슬러 올라가 箭灘川과의 合流地點에 地形에 맞추어 大堤堰을 築造하고 여기서 부터 延長 70里의 大幹線洑를 掘鑿하고 無數한 小水路를 配置하였다.

한편 이 蒙利地區를 끼고 있는 載寧江 本流 및 支流 西江의 汎濫에 對備해서 延長 100里가 넘는 防水堤를 築造해서 開畓을 하였다.

後年 宮家의 所有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洑를 景祐宮洑로 부르게 되었으며 載寧郡 三江 南栗 및 北栗의 三面에 걸쳐 蒙利畓 3839町步에 달했다.

49) 菁 堤

慶尙北道 永川邑에서 南쪽으로 約 6km되는 琴湖江 東편에 속칭 청못(靑池)이라는 큰 貯水池가 있어 지금도 數十萬坪되는 이곳 넓은 平野의 灌漑를 맡고 있는데 이 菁堤의 築造를 記念해서 세운 것으로 보이는 碑石이 菁堤 北쪽 40m되는 골짜기의 비탈면에서 發見되었다.

이 碑石에 새긴 碑文을 풀이해 봄으로써 菁堤築造의 沿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石碑는 兩面碑로서 表面에는 序頭에 「丙辰年二月八日」이라고 시작하여 百數十字의 銘文이 있고 裏面에는 「貞元十四年」의 銘文이 陰刻되어 있다. 이 表裏의 銘文이 모두 菁堤에 關한 것이므로 이 石碑의 碑名을 永川菁堤碑라 稱하게 되었다.

菁堤碑는 菁堤라는 貯水池를 築造하고 建立한 것인데 그 후 修築하고서 또 세운 紀念碑로서 農業水利施設의 沿革을 알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農業의 發展·政治的 社會的인 문제 支配勢力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이들에 대한 村落民의 支配組織의 一面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던져주는 直接間接的인 示唆가 커서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또 菁堤에 대해서는 다른 文獻에도 실려 있는데

世宗實錄 地理志에 菁村堤로, 東國輿地勝覽에는 菁川堤로 永川全誌에는 淸川堤로 記錄되어 있다.

나. 筒

1. 樂 民 筒

오늘날 水利施設의 名稱 가운데 筒이라는 用語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예전에는 흔히 쓰인 名稱인 것 같다.

즉 堤防을 筒이라고 불렀다.

朝鮮金石總覽·下所收 樂民筒碑文에 보면 平安南道 价川邑 東편에 있는 河川의 堤防이 무너지자

(上略) 郡人幼學 李殷瑞 素以施義樹德之人 自出大施之心 一百二十貫銅捐輔於防築之役…(中略) 列刻于口 而名之日 樂民筒 …(下略) 이라 하여 幼學 李殷瑞가 銅 120貫을 義捐金으로 내서 防築의 役事를 도와 數百名이 도움을 받았는데 堤防 이름을 「樂民筒」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碑文에 「樂民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垌과 筒이 同意語로 쓰여진것 같다.

그러나 앞서 紹介한 바 있는 懷仁郡과 沃川郡의 堤防修築方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單獨으로 修築한 것은 대체로 規模가 작은 것이다. 그리고 共同으로 修築한 것은 國家의 命令下에 修築하였거나 農村共同體의 農民이 서로 協力해서 修築하였을 것이다.

國家에서 實施한 修築狀況을 보면 政要抄(朝鮮民政資料 牧民編所收)에 每歲正月 各洞 差出勸農官

一歲農政 預爲區劃於本及耕耘之前…(以下略)라 했고 또 爲守令者 当依法典各洞置勸農官一人擇富貴勤幹者差之…(中略) 堤堰之合築者預先築之…(以下略)이라 하여 地方末端自治機關인 洞에는 勸農官을 두어 적은 堤堰을 修築할 때에는 洞民을 引率하여 일을 하게 하고 큰 堤堰을 修築할 때에는 地方官廳에 告해서 附近 여러 面의 農民을 徵發케 하였으며 適當한 時期에 工事를 일으키지 않은 勸農官은 處罰한다는 것이다.

또 備邊司謄錄 第130册 英祖 32年 2月 24日條(1756年)에 英祖 32年 2月에 黃海道 信川과 載寧兩邑의 破筒修築事業은 國家의 賑恤政策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2. 補民筒과 保民筒

增補文獻備考 卷146 田賦考 6 堤堰條에 보면 孝宗年間 魚川察訪金應旨의 上疏文이 실려 있는데 曰

定州一境之民 各出財力經營 數年築成堤堰 以補民役 名之曰 保民筒…(下略)이라 했다. 즉 定州民들이 民役을 돕기 위해 數年間 修築한 保民筒을 宮家에서 占奪하였기 때문에 怨苦가 甚하다는 것이다. 또 備邊司謄錄 第265册 正祖 6年 10月初 5日條에 의하면 正祖 6年(1782年) 訓練大將 具善復과 領議政 徐命善의 上啓로 養兵의 軍需에 充當하기 위해 肅川의 補民筒(補民坰)을 訓鍊都監에 移屬시키고 그 대신 肅川民에게 새로 堤堰을 新築하기 위한 費用 6000兩을 支給하고 肅川府使 崔雲羽는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留任케 했다.

3. 德池筒과 大也筒

德池筒이란 水利施設이 언제 築造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肅宗初期에는 管餉屯에 屬해 있었다는 記錄이 備邊司謄錄 第40册 肅宗 12年(1686年)閏 4月 29日條에 실려 있다.

即「今閏四月二十八日 晝講入侍時 侍讀官 李徵明所啓…(中略) 德池筒 故相臣 金錫胄建白 令本縣民人起耕收稅 補用管餉에 其數至於七百餘石之多…(下略)라 했는바 德池筒은 管餉에 屬해 있었고 收稅數는 700餘石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肅宗 37年(1711年)에 設置된 經理廳이 그 經費를 앞서부터 管餉屯에 屬해 있던 平安道 永柔「德池筒」의 所出로 充當했다는 것이 備邊司謄錄 第65册 肅宗 39年(1713年) 2月 23日條에 실려 있다. 그런데 屯民으로 부터 稅를 너무 過重하게 徵收함으로써 자주 問題가 일어났던 것 같다. 즉 肅宗 43年 4月 29日 書狀官 權熀의 上啓文에 永柔前川兩邑有德池筒屯畓其數頗多今屬於經理廳矣屯民輩以收稅太重…(以下略)라 하여 屯民들이 事大使臣往還時에 稅金이 過重함을 呼訴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王은 經理廳으로 하여금 處理케 했다 하는데 이와같은 事態는 經理廳의 經費가 거의 德池筒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다. 防　　築

일반적으로 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을 防築이라 하는데 河川의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둑 즉 냇둑을 防川이라고도 하며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쌓은 둑 즉 貯水池 둑을 흔히 防築이라 하고 그 발음이 變해서 「방죽」이라 쓰인다. 따라서 防築이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 防川과 방죽을 包含해서 指稱한다. 다시 말해서 河川 治水用인 둑과 農業用 貯水池 둑을 통털어 防築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많은 數의 防築이 여러가지 目的으로 築造되었었다.

이제 그 흔적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高麗高宗時代 蒙古兵이 侵入해 오자 高麗政府는 江華島로 遷都를 했다(1232年). 이에 따라 王族貴族을 비롯한 數많은 百姓들이 江華島와 그 周邊 여러 섬으로 避難하게 되었으며 人口의 稠密과 耕作面積의 不足으로 生活의 危脅을 받게 되매 海岸地帶에 堤防을 쌓아 農地를 擴張하는 水利事業이 進陟되었다.

高宗 43年(1256年) 2月에 내린 制令中에 又令文武三品以下權務以上 出丁夫有差防築 梯浦 瓦浦 爲左屯田 狸浦 草浦 爲右屯田(高麗史 卷79 食貨 2 農桑條)라 하여 浦口에 堤防을 構築하여 屯田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 高麗史 卷104 列傳第 17 金方慶條와 東國輿地勝覽卷 52 平安道州牧 山川條에 보면 西北面兵馬使의 判官으로 있던 金方慶이 北道諸城의 民을 이끌고 定州牧 앞바다의 葦島로 避難가서 水利事業을 일으켰다는 記事가 나온다. 即

葦島有十餘里 平衍可耕 患海潮 方慶令築堰播種…(以下略)이라 하여 堤防을 構築하여 潮水를 막고 開墾한 結果 많은 收穫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5月乙丑條에 보면 太宗 14年(1414年) 5月에 京畿道 通津과 高陽浦에 防潮堤를 修築하여 播種穀 200餘石의 田地를 얻었다고 했고 史書에 의하면 英祖 正祖代는 國初太宗世宗代와 마찬가지로 水利事業이 크게 일으켜 졌었다고 하였는데 英祖年間의 큰 工事는 英祖 16年(1740年) 8月 安東邑下의 洛東江 堤防工事를 烟軍 東伍軍 僧軍을 動員하여 完築했다.(備邊司謄錄第107册 英祖 1年 8月 30日條)했고 同上書 卷130 131册 32年 5月 21日과 7月初 2日條에 英祖 32年(1756年) 5月에는 咸鏡道 永興本宮內의 防築工事를 實施했다고 했다.

또 成宗實錄 卷183 成宗 16年 10月甲午乙未條에 보면 成宗 16年(1485年)과 17年(1486年)에 걸쳐 黃海道 載寧郡의 箭灘開渠事業이 實施되었다. 먼저 16年 9月에 調査에 着手하고 途中巨石에 부닥치고 또한 氣候도 매우 寒冷함에 一旦 中止하였다가 다음해 17年 10月에 再 着手하여 11月에 드디어 完成했다 하였으며 箭灘에서 栗串까지 長 1832尺, 廣 20尺의 開渠事業과 兎川에 長 900尺, 廣 50尺, 高 8尺(水門 1個處 25尺包含)의 築堤, 그리고 栗串所濃浦에 堤長 80尺 廣 40尺 高 5尺의 築堤事業이 함께 完成되었고 이 結果 栗串坪에서 延津까지 5,6千餘石의 可耕地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中宗實錄 卷82 中宗 31年 6月 辛丑條에 보면 中宗 31年(1536年) 6月 漢江流域인 京畿道 廣州郡 犬項의 築堤工事가 가장 큰 事業으로서 僧人 400餘名이 動員되어 完成했다고 하였다. 犬項은 서울廣州(광나루)근처라고 되어 있으나 正確한 위치는 알 수 없다.

上述한 바와 같이 蒙古侵入時 高麗朝에서 梯浦, 瓦浦, 獨浦 등에 防築을 쌓아서 屯田을 만든 바 있는데 그 後에도 더 많은 防築事業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江華志」와 「續修增補江華都志」에 의하면 仁祖 14年(1636年)에 三間浦堰, 孝宗 7年(1656年)에 屈串堰, 顯宗 5年(1664年)에 大靑浦堰 同 6年(1665年)에 長池堰, 同 7年(1666年)에 井浦堰, 同 11年(1670年)에 昇天副堤, 肅宗 22年(1696年)에 把浦堰, 同 32年(1706年)에 船頭浦防築 同41年(1715年)에 船頭中堤, 同43年(1717年)에 船頭浦防築 등 여러 防築이 完成되었다. 이러한 防築들은 모두 曆代 江華留守들의 努力으로 이루어졌다.

라. 屯　田

우리나라의 屯田制度는 그 由來가 매우 오래 되었으며 本來 屯田이란 耕作할만한 荒閑地를 開

墾하여 얻은 國家歸屬인 田土를 말하는 것으로 그 歷史는 新羅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의 田制로서 制度化된 것은 대개 高麗 肅宗(1096~1105年)때 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地方官廳의 經費로 쓰도록 하는 官屯田과 州鎭 등 軍隊의 軍糧米와 經費에 충당하는 軍屯田으로 나뉘었다.

屯田하면 江華島屯田이 有名하거니와 江華島에 屯田制를 實施한 것은 高麗 高宗이 江華로 遷都한 後부터였다.

그 後 700年間에 增減 또는 存廢가 무쌍하였는데 그 制度를 살펴보면 元屯, 假屯, 軍屯, 左右屯 등의 이름이 있다.

左屯은 제포 瓦浦 등 지금의 昇天浦 附近一帶이다. 右屯은 右屯浦 狸浦, 草浦 등 지금의 굴이포 草芝附近一帶이며 以上 2屯田은 高麗 高宗 43年(1356年) 10月에 4個浦 附近 土地에 屯田을 설치할 때 文武三品以下 官員을 出役시켜 防築工事를 했다 한다.

그 後 高麗隅王 3年(1377年)에 崔瑩將軍의 上奏로 權門勢家에 屬했던 3곳의 私田制를 廢止하고 여러곳에 산재했던 土地가 모두 屯田이 되었다 한다.

李朝때에는 國初以來 國屯田과 官屯田制度가 있었으니 官屯田은 地方官衙에게 國屯田은 鎭戍의 兵卒에게 給하여 이것을 耕種케 하여 그 收穫으로써 관아의 經費 또는 軍糧에 充當케 했다. 그런데 壬辰倭亂 以後에는 訓鍊都監을 비롯한 많은 營門 衙門이 設置되면서 제각기 많은 田地를 屯田으로 占有케 되었으니 이 制度는 一大飛躍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營門·衙門 등의 國家各機關에서 屯田을 所有하게 되니 그 屯田을 管理하기 위해 자연히 水利施設까지도 所有하기에 이르렀다. 본래부터 開墾되고 있던 田地를 屯田으로 移屬도 했지만 때로는 水利施設을 修築한 然後에 荒蕪地를 開墾하여 屯田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營門 衙門에 屬해 있던 屯田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즉

가) 各營門屯田

訓鍊都監屯 禁衛營屯 摠戒廳屯 龍虎營屯 壯勇營屯 武衛營屯 監營屯 總理營屯 經理營屯 鎭撫營屯 鎭禦營屯 統制營屯 兵營屯 水營屯 防禦營屯 鎭營屯 鎭堡屯 欄護軍屯

나) 各衙門屯田

耆老所屯 宗親府屯 議政府屯 敦寧府屯 忠勳府屯 義禁府屯 戶曹屯賑恤廳屯 均役廳屯 奎章閣屯 奉常寺屯 司僕寺屯 軍器寺屯 掌樂院屯 繕工監屯 氷庫署屯 典牲署屯 司畜署屯 內資寺屯 內膳寺屯 掌苑署屯 司圃署屯 活人署屯 惠民署屯 粮餉廳屯

다) 其他의 屯田

官屯 廳屯 砲軍屯 軍田 義僧屯 津夫屯 烽臺屯 揆所屯 史庫屯

마. 댐(Dam)

1. 大雅 댐

光武 10年 水利組合條例가 發布되고 近代的 水利組合의 緊要性이 提高되자 當時 全北道參事로 있던 金相熙가 組合設立에 着眼하여 全羅北道經由 大韓帝國度 支部로 부터 設立認可를 얻어서 沃溝西部 水利組合이 1908年 2月에 創設되고 이듬해 臨益水利組合이 그리고 塔川의 臨沃水利組合이 設立되었고 같은 해에 沃溝 南部水利組合이 設立되었다.

그런데 이 臨益水利組合이 創設되기 以前에 이곳에는 이미 앞에서 紹介한 바 있는 黃登堤가 있었으나 일반 사회에서는 腰橋堤라고 불리어 왔던 관계로 黃登堤라 하면 잘 모르고 있다.

이 黃登堤의 築造年代에 대해서는 分明한 史記가 없어 알 수 없고 다만 同堤 北쪽 20里許에 있는 미륵山下에 箕準王이 遷都했을 때 築造된 것이라는 傳說만 남아 있다.

이 黃登堤를 改補修하여 그 자리에 臨益水利組合을 創設한 것이다.

그 後 益沃水利組合에서는 出帆과 同時에 大雅貯水池 築造에 관한 計劃을 樹立하였으며 農業用水源工으로서는 當時 全國에서 가장 큰 規模의 工事로서 全州 一部와 益山, 沃溝의 8000餘町步의 農地에 대한 灌漑가 거의 自然流入에 의해 可能한 것으로 되어 있다.

大雅댐은 完州郡東上面 大雅里에 位置하고 粗石混入 콘크리트 댐으로서 높이 32.72m, 길이 254.1 m 貯水量은 2,160萬m^3이며 모양도 아름다운 아치형 댐이다.

1921年 10月에 착공하여 1923年 3月에 完工되었으며 同年 6月 16, 17日 兩日間에 걸쳐 竣工式을 갖기로 했다는 記錄이 남아있다.

現在는 그 下流에 새로 建設한 新댐이 完成됨에 따라 貯水內에 水沒되었다.

2. 雲岩堤

1925年 8月 19日 東津水利組合이 設置認可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最大規模의 水利機關이었다.

그리하여 萬頃平野에 灌漑할 農業用水源으로서 蟾津江 本流와 秋嶺川이 合流하는 地點으로부터 2km 下流인 右岸은 井邑郡山內面崇聖里黃土部落에서 左岸은 任實郡雲岩面玉井里舟所部落을 連結하여 소위 雲岩大堤를 築造하였던 것이다.

1925年 11月에 着工하여 1927年 12月에 竣工해서 28年 1月 5日부터 貯水를 開始하였다.

이 雲岩堤의 規模는 堤塘高 28m, 길이 316m 總貯水量 6,900萬m^3로서 構造는 割石混入 콘크리트 댐이며 아치型이다.

雲岩堤는 當時로서는 單一貯水池로서 6000萬m^3 以上을 貯水할 수 있는 貯水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當時 總督이었던 齋藤實가 命名했는데 規模의 巨大함에 감탄하여 大子를 더 붙여서 雲岩大堤라 하였다 한다.

이 댐은 特異한 點을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 多目的 댐이라는 點이고
2) 아름다움 아치型 댐이라는 點이고
3) 거의 石造댐에 가까운 콘크리트댐이라는 點이고
4) 우리나라에서는 最初로 테인터게이트式 餘水吐 施設을 했다는 點이고
5) 貯水한 쪽 平野에 灌漑하는 것이 아니라 山脈을 넘겨 다시 말해 水系를 바꾸어서 灌漑한다는 點이고
6) 取水塔에서부터 山脈을 넘기기 위해 4km의 터널을 뚫어 導水하여 東津川으로 流入시켜서 灌漑하는 同時에 그 落下地點에 發電所를 設置하였으니 이것이 雲岩發電所이고
7) 水量이 豊富한 까닭에 餘水를 活用하기 위해 6km의 터널을 뚫어서 導水 落下시킴으로써 發電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七寶發電所이니 한개 貯水池에 2개 發電所가 있다는 것은 稀貴한 것이다.

이것은 貯水池滿水位와 放出水 落下地點인 平野部와의 標高差가 무려 115m나 되기 때문에 可能한 것이다.

이 歷史的인 構造物이 1960年代初 電力難解消를 目的으로 七寶發電所를 擴張시키기 위해 舊댐 下流 2km 地點에 새로 蟾津댐을 築造하였기 때문에 水沒되고 말았다.